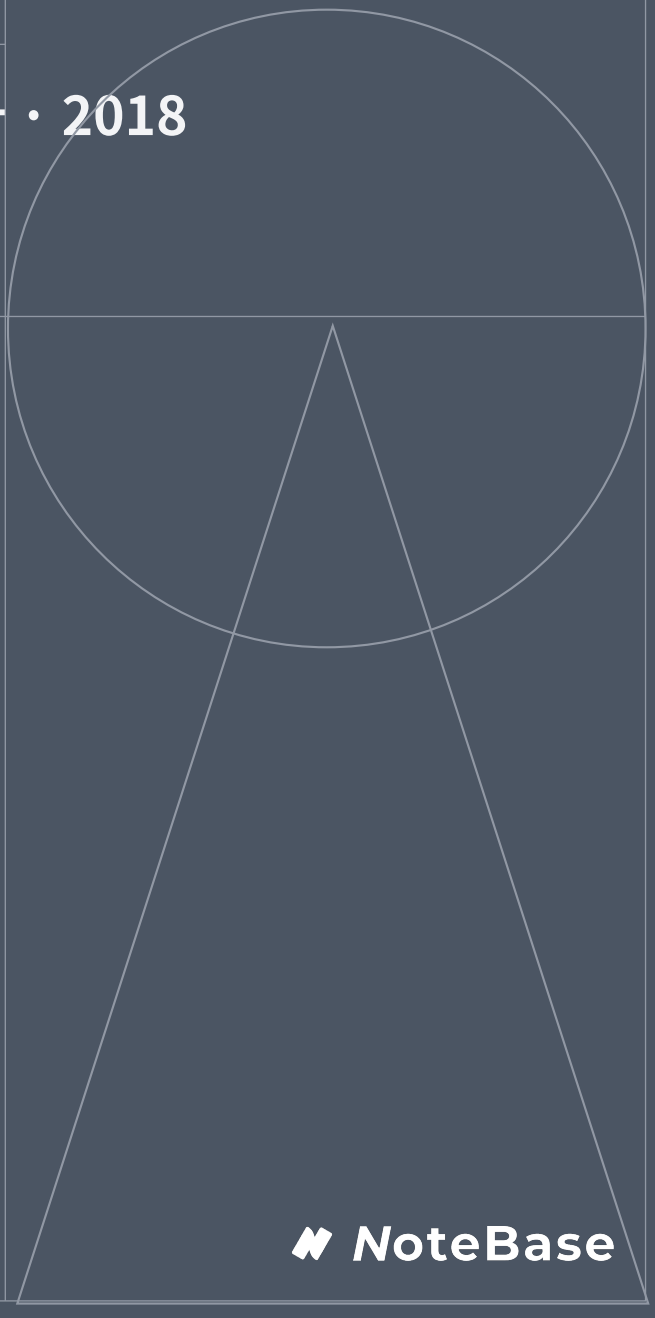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7급 · 한국사 · 2018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7급 · 한국사 · 2018

공무원/지방직/7급 · 한국사 · 2018

문 1. 다음 사건이 발생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우산국은 명주의 동쪽 바다에 있는 섬으로, 울릉도라고도 한다. 땅은 사방 백 리인데, 지세가 험한 것을 믿고 복종하지 않았다. 이찬 이사부가 하슬라주 군주가 되어, '우산국 사람은 어리석고도 사나워서 힘으로 다루기는 어렵고 계책으로 복종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나무 사자[木偶子]를 많이 만들어 전선에 나누어 싣고 그 나라 해안에 다다랐다. … (중략) … 그 나라 사람들이 두려워 즉시 항복하였다.

① 상대등 제도를 시행하였다.

② 아시촌에 소경을 설치하였다.

③ 고구려 승려 혜량을 승통으로 삼았다.

④ 사방에 우역(郵驛)을 처음으로 두었다.

정답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출제 포인트

제시문의 이사부가 나무 사자를 이용해 우산국을 복속한 사건은 지증왕 13년(512)의 일이다. 이 사건으로 왕을 지증왕으로 파악한 뒤 같은 왕의 업적을 고르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지증왕은 지방 통치를 정비하고 신라의 국가 체제를 강화하였다. 대표 업적으로 국호를 신라로 확정하고 왕호를 사용한 것, 순장을 금지한 것, 우경을 장려한 것, 동시와 아시촌 소경을 설치한 것, 이사부를 통해 우산국을 복속한 것이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상대등 제도를 시행하였다'는 부분이 틀렸다. 상대등은 법흥왕 18년(531)에 처음 설치되었으므로, '법흥왕이 상대등을 설치하였다'로 고쳐야 한다.
② O — 지증왕은 15년(514)에 아시촌에 소경을 설치하였다. 제시문의 우산국 복속과 같은 지증왕 재위기의 사실이다.
③ X — '고구려 승려 혜량을 승통으로 삼았다'는 것은 진흥왕의 업적이다. 진흥왕은 고구려에서 온 혜량을 승통으로 삼아 신라의 승려 조직을 정비하였다.
④ X — '사방에 우역을 처음으로 두었다'는 것은 소지마립간 9년(487)의 사실이다. 따라서 '소지마립간이 사방에 우역을 설치하고 관도를 수리하였다'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선지는 모두 신라 중고기 전후의 체제 정비 사실을 섞어 놓았다. 특히 지증왕의 아시촌 소경 설치와 소지마립간의 우역 설치는 모두 지방 통치와 교통망 정비에 관련되어 혼동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사부·나무 사자·우산국'이 보이면 먼저 지증왕을 확정한다. 이후 지증왕의 업적인 아시촌 소경 설치를 찾고, 상대등은 법흥왕, 혜량 승통은 진흥왕, 사방 우역은 소지마립간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지증왕은 우산국·아시촌 소경, 법흥왕은 상대등, 진흥왕은 혜량 승통, 소지마립간은 우역이다.

NoteBase

문 2. 고려후기 개혁정치에 대한 설명이다. (ㄱ)과 (ㄴ)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충선왕의 관제 개혁으로 (ㄱ)은 시정(施政)에 대한 국왕의 고문 기능 겸 전주(銓注)와 왕명출납을 관장하는 권력기구로 부상하여 개혁의 중심 기관이 되었다. 충목왕은 (ㄴ)이라는 임시기구를 설치하여 부원 세력을 척결하면서 권세가들이 불법으로 차지한 토지와 노비를 조사하여 본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① (ㄱ): 사림원, (ㄴ): 교정도감

② (ㄱ): 권민조례추변도감, (ㄴ): 정치도감

③ (ㄱ): 사림원, (ㄴ): 정치도감

④ (ㄱ): 교정도감, (ㄴ): 권민조례추변도감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고려 후기 개혁 정치에서 충선왕의 사림원과 충목왕의 정치도감을 각각 대응시키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사림원은 충선왕의 관제 개혁 때 설치된 기구로, 국왕에게 시정을 자문하고 전주와 왕명 출납을 맡아 왕권 강화와 개혁의 중심이 되었다.
정치도감은 충목왕이 설치한 임시 개혁 기구로, 부원 세력을 억제하고 권세가의 토지·노비 침탈을 바로잡는 일을 추진하였다.
교정도감은 최충헌이 설치한 무신 집권기의 최고 권력 기구이므로 충목왕의 개혁 기구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X: ㄱ의 사림원은 맞지만, ㄴ의 '교정도감'이 틀렸다. 교정도감은 최충헌의 기구이다. ㄴ은 정치도감으로 바르게 고쳐야 한다.
② X: ㄴ의 정치도감은 맞지만, ㄱ의 '권민조례추변도감'이 틀렸다. 충선왕의 관제 개혁에서 국왕 자문과 전주·왕명 출납을 맡은 기구는 사림원이다. ㄱ은 사림원으로 고쳐야 한다.
③ O: 충선왕의 사림원과 충목왕의 정치도감을 바르게 연결하였다.
④ X: ㄱ의 '교정도감'과 ㄴ의 '권민조례추변도감'이 모두 틀렸다. ㄱ은 사림원, ㄴ은 정치도감으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④의 교정도감은 고려 후기 개혁 정치의 기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최충헌의 무신 집권기 기구이다. 또한 ㄱ은 충선왕, ㄴ은 충목왕의 개혁 기구라는 설치 주체를 바꾸어 놓으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왕 자문·전주·왕명 출납이라는 기능이 보이면 충선왕의 사림원을, 부원 세력 척결·토지와 노비의 불법 점탈 시정이 보이면 충목왕의 정치도감을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충선왕 사림원, 충목왕 정치도감, 최충헌 교정도감이다.

NoteBase

문 3. 다음 정강을 발표했던 사건의 결과로 옳은 것은?

1. 홍선 대원군을 빨리 귀국시키고 종래 청에 대해 행하던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
2.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 평등권을 제정하여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한다.
3. 지조법을 개혁하여 관리의 부정을 막고 백성을 보호하며 재정을 넉넉히 한다.
… (중략) …
12. 모든 재정은 호조에서 관할한다.
13. 대신과 참찬은 의정부에 모여 정령을 의결하고 반포한다.
… (후략)

① 청의 내정 간섭이 강화되었다.

② 박문국과 전환국이 설립되었다.

③ 개혁 추진 기관으로 통리기무아문이 설치되었다.

④ 일본은 배상금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물포조약의 체결을 강요하였다.

정답 1번

정답

정답은 1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제시된 정강이 급진 개화파가 갑신정변 때 발표한 14개조 정강임을 파악하고, 갑신정변의 결과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갑신정변은 급진 개화파가 청의 간섭을 벗어나 근대 국가를 만들려 한 정변이다. 흥선 대원군의 귀국, 문벌 폐지와 인민 평등권, 지조법 개혁, 호조의 재정 관할 등은 그 정강의 내용이다. 정변은 청군의 개입으로 3일 만에 실패하였고, 그 뒤 청의 내정 간섭이 더욱 강해졌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갑신정변은 청군의 개입으로 실패하였고, 이후 청의 조선 내정 간섭이 강화되었다.

② X. 틀린 표현은 '박문국과 전환국이 설립되었다'이다. 박문국과 전환국은 갑신정변의 결과가 아니라 개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설치된 기관이다.

③ X. 틀린 표현은 '통리기무아문이 설치되었다'이다. 통리기무아문은 갑신정변 이전에 개화 정책을 추진하려고 설치된 기구이다.

④ X. 틀린 표현은 '일본은 배상금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물포조약의 체결을 강요하였다'이다. 제물포조약은 임오군란 뒤 일본이 배상금 등을 요구하여 맺은 조약이며, 갑신정변의 결과와는 관련이 없다.

오답 포인트

②와 ③은 모두 갑신정변보다 앞선 개화 정책의 내용이다. ④의 제물포조약도 갑신정변이 아니라 임오군란의 결과이므로, 여러 개화기 사건을 한 시기로 묶어 판단하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강에 '흥선 대원군 귀국', '문벌 폐지', '인민 평등권', '호조의 재정 관할'이 보이면 갑신정변을 떠올린다. 그 결과는 청군의 개입으로 인한 정변 실패와 청의 내정 간섭 강화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갑신정변 정강: 대원군 귀국·문벌 폐지·재정 일원화 / 결과: 청군 개입, 청의 간섭 강화이다.

NoteBase

문 4. 밑줄 친 '강습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11년 만주 유하현 삼원보에 독립군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강습소가 설립되었다. 이 강습소는 이듬해에 통화현으로 근거지를 옮겼으며, 나중에 학교로 개편되었다. 이 학교에는 4년제 중학 과정의 본과가 있었고, 3개월 또는 6개월의 무관 양성을 위한 속성과인 특별과가 있었다.

① 일제가 만주 군벌과 체결한 미쓰야 협정으로 폐교되었다.

② 이회영 등이 독립운동기지 건설 운동의 일환으로 설립하였다.

③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상해로 근거지를 옮겼다.

④ 중·일전쟁 이후에 조선민족전선연맹의 산하 조직으로 편입되었다.

정답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만주의 강습소가 신흥무관학교로 개편된 사실과, 다른 시기 독립운동 단체의 활동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강습소는 1911년 이회영 등이 만주 삼원보에 세운 독립군 양성 기관이다. 이 기관은 통화현으로 옮긴 뒤 신흥무관학교로 개편되어 독립군 간부를 길렀다.
신흥무관학교는 무장 독립운동 인력을 양성한 교육 기관이고, 조선민족전선연맹은 1930년대 중국 관내의 독립운동 연합 조직이므로 시기와 성격이 다르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일제가 만주 군벌과 체결한 미쓰야 협정으로 폐교되었다'이다. 미쓰야 협정은 1925년 일본과 만주 군벌 사이의 독립운동 탄압 협조와 관련된 협정이며, 강습소는 그 이전에 신흥무관학교로 개편되었다.
② O - 이회영 등은 만주 삼원보에 강습소를 세워 독립군을 양성하였고, 이는 뒤에 신흥무관학교로 이어져 독립군 양성의 기반이 되었다.
③ X - 틀린 표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상해로 근거지를 옮겼다'이다. 강습소는 만주에서 운영되다가 통화현으로 옮겨 신흥무관학교로 개편되었으며, 상해로 옮긴 기관이 아니다.
④ X - 틀린 표현은 '중·일 전쟁 이후 조선민족전선연맹의 산하 조직으로 편입되었다'이다. 강습소는 신흥무관학교로 개편된 뒤 1920년에 폐교되었으므로, 1930년대의 조선민족전선연맹 산하 조직이 될 수 없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임시정부의 상해 활동을, ④는 중·일 전쟁 이후 중국 관내 독립운동 단체의 활동을 강습소에 섞어 놓은 선지이다. 기관의 위치와 활동 시기를 함께 대조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강습소·신흥무관학교가 보이면 만주 삼원보, 이회영, 독립군 양성을 연결한다. 이어서 선지의 시기가 1910년대 만주인지, 1920년대 이후 또는 중국 관내 활동인지 확인하여 다른 단체의 사실을 가려 낸다.

암기 포인트

삼원보 강습소 → 통화현 이전 → 신흥무관학교, 핵심은 독립군 양성이다.

NoteBase

문 5.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상가는 녹(祿)이 끊이지 않았다. 노동(奴僮)이 3,000명이고, 비슷한 수의 갑옷과 무기, 소, 말, 돼지가 있었다. 바다 가운데 섬에서 길러 필요할 때에 활로 쏘아서 잡아먹었다. 곡식을 꾸어서 갚지 못하면 노비로 삼았다.

① 천문박사와 누각박사를 두었다.

② 인구는 남녀 각각 연령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하였다.

③ 수도에 서시(西市)와 남시(南市)가 새로이 설치되었다.

④ 지방에서 수취한 조세를 수도로 이송하는 조운 체계가 확립되었다.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통일 신라 귀족의 경제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를 바탕으로, 통일 신라의 제도와 고려의 조운 체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통일 신라 귀족은 녹읍·사유지와 많은 노비, 목장, 섬 등을 바탕으로 풍족한 생활을 하였다. 제시문에서 재상가가 3,000명의 노비와 많은 갑옷·가축을 거느리고 섬을 소유한 모습이 이를 보여 준다. 조운은 지방에서 거둔 조세를 선박으로 수도 개경에 운송한 고려의 수취·운송 체계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신라는 천문 관측과 시각 측정을 위해 천문박사와 누각박사를 두었다.
② O. 통일 신라는 신라촌락문서에 남녀 인구를 각각 연령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어 기록하였다.
③ O. 통일 신라의 수도 금성에는 동시 외에 서시와 남시가 새로 설치되어 상업이 발달하였다.
④ X. '조운 체계가 확립되었다'는 표현이 틀렸다. 조운은 지방에서 거둔 조세를 수도 개경으로 운송한 고려의 제도이며, 통일 신라의 제도가 아니다.

오답 포인트

자료의 노비·목장·섬 소유를 통일 신라 귀족의 경제 기반으로 파악하지 못하면 ④를 통일 신라의 수취 제도로 오인하기 쉽다. ①~③은 모두 통일 신라의 제도 또는 경제생활과 관련되고, 조운만 고려의 특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귀족이 대규모 노비와 사유 재산을 소유한 자료가 나오면 먼저 통일 신라 귀족의 경제생활을 떠올린다. 이어서 신라촌락문서·금성의 시장은 통일 신라, 지방 조세를 선박으로 개경에 옮기는 조운은 고려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통일 신라: 신라촌락문서·서시·남시·천문박사·누각박사 / 고려: 개경으로 조세를 운송한 조운

NoteBase

문 6. 고려시대 성리학의 수용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백이정은 직접 원에 가서 성리학을 배워 왔다.

② 김문정은 원에서 공자의 화상과 각종 서적을 구해 왔다.

③ 안향은 정몽주, 권근, 정도전 등을 가르쳐 성리학을 더욱 확산시켰다.

④ 이제현은 만권당에서 원의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성리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였다.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고려 말 성리학이 수용·확산되는 과정에서 인물별 활동과 학문 계보를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안향: 원에서 성리학 관련 서적과 공자·주자의 화상을 들여와 고려에 성리학을 소개하였다.
백이정: 원에 직접 가서 성리학을 익힌 뒤 귀국하여 후학에게 전하였다.
이제현: 원의 만권당에서 원 학자들과 교류하며 성리학 이해를 넓혔다.
이색: 이제현의 제자로서 정몽주·권근·정도전 등을 길러 성리학을 확산시켰다.

선지별 해설

① O. 백이정은 원에 가서 성리학을 배우고 이를 고려에 전한 인물이다.
② O. 김문정은 원에서 공자의 화상과 여러 서적을 구해 온 인물로, 성리학 관련 문물의 수용과 연결된다.
③ X. 안향은 1306년에 사망하였으므로 뒤에 태어난 정몽주·권근·정도전을 가르칠 수 없다. 틀린 표현은 '안향은 정몽주, 권근, 정도전 등을 가르쳐'이며, 올바르게는 '이색이 이들을 길러 성리학을 확산시켰다'이다.
④ O. 이제현은 원의 만권당에서 원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성리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였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안향이 성리학을 처음 들여온 인물이라는 점 때문에 후대 성리학자까지 모두 안향의 제자로 연결하기 쉽다. 정몽주·권근·정도전은 이색의 제자라는 학문 계보를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성리학 수용 과정은 인물의 활동을 시간 순서와 사제 관계로 대조한다. 안향은 도입, 백이정·이제현은 원 학계와의 교류, 이색은 후학 양성으로 구분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안향은 도입, 이제현은 만권당, 이색은 정몽주·권근·정도전의 스승이다.

NoteBase

문 7. 다음은 고려·조선시대 토지제도의 폐단을 기술한 것이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실시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 권문세족의 대토지 소유와 토지 겸병으로 국가 재정이 부족해졌다.
(나) 수신전, 휼양전, 공신전 세습과 증가로 신진 관료에게 지급할 수조지가 부족해졌다.
(다) 수조권을 받은 관료가 권한을 남용하여 과다하게 수취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라) 거듭되는 흉년과 왜구의 침입 등으로 국가 재정이 악화되어 직전이 유명무실해졌다.

① (가) - 권문세족이 겸병한 토지를 몰수하고, 전국 토지의 수조권을 관료에게 지급하였다.
② (나) - 공신전을 몰수하고 신진 관료에게 수조권 지급을 중지하였다.
③ (다) - 관료의 직접적인 수조권 행사를 금지하고 관청에서 수조권 행사를 대행하였다.
④ (라) - 관료에게 수조권과 함께 녹봉도 지급하였다.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고려 말·조선 전기 토지 제도의 폐단에 대응한 과전법, 직전법, 관수관급제와 직전법 폐지의 내용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과전법은 권문세족의 토지 겸병을 바로잡고 경기 지방 토지의 수조권을 관료에게 지급한 제도이다.
직전법은 수조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현직 관료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한 제도이다.
관수관급제는 관료가 직접 수조하지 못하게 하고 관청이 조세를 거두어 지급한 제도이다.
직전법 폐지 뒤에는 관료의 수조권을 없애고 녹봉을 지급하였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가)의 폐단을 시정한 과전법은 권문세족의 불법 겸병지를 정리하였지만, 관료에게 지급한 수조권의 대상은 전국 토지가 아니라 경기 지방 토지였다. 틀린 표현은 '전국 토지'이며, 올바르게는 '경기 지방 토지의 수조권을 관료에게 지급하였다'이다.
② X. (나)의 수조지 부족에는 직전법을 실시하여 현직 관료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틀린 표현은 '공신전을 몰수하고 신진 관료에게 수조권 지급을 중지하였다'이며, 올바르게는 '현직 관료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였다'이다.
③ O. (다)의 과다 수취를 막기 위해 관수관급제를 실시하여 관료의 직접 수조를 금지하고 관청이 조세를 거두어 관료에게 지급하였다.
④ X. (라) 뒤에는 직전법이 폐지되어 관료의 수조권도 없어지고 녹봉을 지급하였다. 틀린 표현은 '수조권과 함께 녹봉도 지급하였다'이며, 올바르게는 '수조권을 폐지하고 녹봉을 지급하였다'이다.

오답 포인트

①은 과전법의 토지 지급 범위를 '전국'으로 넓힌 점이 함정이다. ②는 직전법의 수혜 대상을 끊었다고, ④는 수조권과 녹봉을 함께 주었다고 반대로 서술한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토지 겸병에는 과전법의 경기 지방 수조권 지급, 수조지 부족에는 직전법의 현직 관료 한정, 관리의 과다 수취에는 관수관급제를 대응시킨다. 직전법 폐지와 녹봉 지급은 관료의 수조권이 사라진 뒤의 조치이다.

암기 포인트

과전법은 경기, 직전법은 현직, 관수관급제는 관청 수조, 직전법 폐지는 녹봉이다.

NoteBase

문 8. 다음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1878 평남 강서군 출생
1898 독립협회 활동
1899 점진학교 설립
1907 신민회 조직
1923 국민대표회의 참여
1938 투옥 끝에 사망

① 흥사단을 조직하였다.
② 한인애국단을 창단하였다.
③ 헤이그 특사로 파견되었다.
④ 대한매일신보에 '독사신론'을 연재하였다.

정답 1번

정답

정답은 1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독립협회 활동, 점진학교 설립, 신민회 조직, 국민대표회의 참여의 연표로 확인되는 안창호와 그의 대표 활동을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안창호: 교육·실력 양성과 신민회·흥사단 활동을 통해 독립운동의 기반을 마련한 인물이다.
김구: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여 의열 투쟁을 이끈 인물이다.
헤이그 특사: 이준·이상설·이위종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파견되었다.
신채호: 대한매일신보에 「독사신론」을 발표하여 민족주의 역사 인식을 강조한 인물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안창호는 19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사단을 조직하였다. 흥사단은 인격 수양과 민족의 실력 양성을 중시하였다.
② X. 틀린 표현은 '한인애국단을 창단하였다'이다. 한인애국단은 김구가 조직하였고, 안창호는 신민회와 흥사단 활동을 전개하였다.
③ X. 틀린 표현은 '헤이그 특사로 파견되었다'이다. 헤이그 특사는 이준·이상설·이위종이며, 안창호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X. 틀린 표현은 '대한매일신보에 「독사신론」을 연재하였다'이다. 「독사신론」은 신채호가 대한매일신보에 발표한 글이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안창호의 단체 활동을 김구의 한인애국단과 혼동하거나, 독립운동가라는 공통점만으로 헤이그 특사와 「독사신론」을 안창호에게 연결하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물 연표에서 독립협회·점진학교·신민회·흥사단이 함께 나오면 안창호를 먼저 떠올린다. 이후 선지의 단체·사건·저술이 각각 김구, 헤이그 특사, 신채호의 대표 사항인지 대조하여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안창호 = 신민회·흥사단, 김구 = 한인애국단, 신채호 = 「독사신론」이다.

NoteBase

문 9. 갑오개혁 때 시행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법권을 행정부에서 독립시켰다.

② 내장원에서 광산, 홍삼 전매 등을 관장하였다.

③ 군현제와 8도제를 폐지하여 전국을 23부 337군으로 재편하였다.

④ 신식화폐발행장정을 반포하여 일본 화폐의 유통을 허용하였다.

정답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1894년 갑오개혁의 제도·경제 정책과 대한제국기 광무개혁의 내용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갑오개혁은 1894년 추진된 근대적 개혁으로 행정·사법·지방 제도와 화폐 제도를 정비하였다.
광무개혁은 대한제국기에 황제권과 국가 재정을 강화하려 한 개혁으로, 내장원이 황실 재정과 관련 사업을 관장하였다.
갑오개혁은 23부제·사법권 독립·신식 화폐 발행이 핵심이고, 광무개혁은 내장원·양전 사업·식산흥업이 핵심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갑오개혁에서는 재판소를 설치하여 사법권을 행정부에서 독립시키려 하였다. 근대적 삼권 분립 원리를 반영한 조치이다.
② X. 틀린 표현은 '내장원에서 광산, 홍삼 전매 등을 관장하였다'이다. 이는 대한제국기 광무개혁의 내용이며, 내장원은 황실 재정과 광산·홍삼 전매 등을 관장하였다.
③ O. 갑오개혁 때 기존 군현제와 8도제를 폐지하고 전국을 23부 337군으로 개편하였다.
④ O. 갑오개혁 때 신식 화폐 발행 장정을 반포하고 일본 화폐의 유통을 허용하였다.

오답 포인트

②의 내장원은 갑오개혁의 기구가 아니라 대한제국기 광무개혁과 연결된다. 갑오개혁과 광무개혁을 모두 근대화 정책으로만 기억하면 시기를 혼동하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23부제, 사법권 독립, 신식 화폐는 갑오개혁으로 판단한다. 내장원, 양전 사업, 식산흥업, 구본신참은 대한제국기 광무개혁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갑오개혁은 23부·사법권·신식 화폐, 광무개혁은 내장원·양전·식산흥업이다.

NoteBase

문 10. 기자에 대한 인식의 변천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구려에서는 기자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② 고려시대에는 평양에 기자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지냈다.

③ 한백겸은 토지개혁론의 입장에서 기자의 정전(井田)에 주목하였다.

④ 이익은 '삼한정통론'에서 기자가 조선에 봉해졌다는 주장을 부정하였다.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기자에 대한 인식의 변천과 한백겸·이익의 역사 인식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기자 숭배는 고구려의 기자신 제사와 고려의 평양 기자사당 건립·제사로 이어진 인식이다.
한백겸의 기자 정전 논의는 기자의 정전제를 토지 제도 개혁 논의의 근거로 삼은 것이다.
이익의 삼한정통론은 단군조선·기자조선·마한(삼한)을 우리 역사의 정통 계승으로 파악한 역사 인식이다.
따라서 이익은 기자를 조선에 봉한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다.

선지별 해설

① O. 고구려에서는 기자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기자를 동방의 성인으로 숭상한 인식의 이른 사례이다.
② O. 고려 시대에는 평양에 기자사당을 세우고 기자에게 제사를 지냈다.
③ O. 한백겸은 토지 개혁론의 관점에서 기자의 정전제에 주목하였다. 정전제를 현실의 토지 제도 개혁과 연결해 해석하였다.
④ X. 틀린 표현은 '기자가 조선에 봉해졌다는 주장을 부정하였다'이다. 이익은 삼한정통론에서 단군조선 다음에 기자조선을 정통으로 보았고, 주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는 인식을 받아들였다.

오답 포인트

④는 이익의 삼한정통론을 단군만을 중시하는 역사 인식처럼 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삼한정통론에는 기자조선이 정통 계승의 한 단계로 포함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자 관련 선지는 시대별 사실과 학자별 관점을 나누어 판단한다. 고구려·고려는 기자 숭배와 제사, 한백겸은 정전제와 토지 개혁, 이익은 기자조선을 포함한 삼한정통론으로 연결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기자: 고구려 제사 → 고려 평양 사당 → 한백겸 정전 → 이익의 단군·기자·삼한 정통론이다.

NoteBase

문 11. 지방 군사제도의 변천 과정을 시대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국방 요지인 영·진에 소속되어 복무하는 영진군이 있었다.
ㄴ. 양반부터 천인에 이르는 신분으로 구성된 속오군이 편성되었다.
ㄷ. 10정은 각 주마다 1정씩 배치되었는데, 한주(漢州)에는 2정이 설치되었다.
ㄹ. 5도의 일반 군현에 주둔하는 주현군과 양계 지역의 주진군으로 구성되었다.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ㄱ → ㄷ → ㄹ → ㄴ
③ ㄷ → ㄱ → ㄹ → ㄴ
④ ㄷ → ㄹ → ㄱ → ㄴ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지방 군사 제도의 시대별 변천 순서를 묻는다. 10정은 통일 신라, 5도의 주현군·양계의 주진군은 고려, 영진군은 조선 전기, 속오군은 조선 후기에 해당한다.

올바른 순서

1. ㄷ — 통일 신라는 지방의 9주에 10정을 두었고, 한주에는 2정을 설치하였다.
2. ㄹ — 고려는 5도 일반 군현에 주현군을, 국경 지역인 양계에 주진군을 편성하였다.
3. ㄱ — 조선 전기에는 국방 요지의 영·진에 소속되어 복무하는 영진군을 두었다.
4. ㄴ — 조선 후기에는 양반부터 천인에 이르는 신분을 대상으로 속오군을 편성하였다.

왜 이 순서: 통일 신라의 주(州)·정(停) 편제가 먼저이고, 고려의 5도·양계 군사 편제 뒤에 조선 전기의 영진군과 조선 후기의 속오군이 이어진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ㄴ→ㄷ→ㄹ은 조선 전기 영진군과 조선 후기 속오군을 통일 신라·고려 제도보다 앞에 놓았다. 틀린 순서 → 올바르게는 ㄷ→ㄹ→ㄱ→ㄴ이다.
② X — ㄱ→ㄷ→ㄹ→ㄴ은 조선 전기의 영진군 ㄱ을 통일 신라의 10정 ㄷ보다 앞에 놓았다. 틀린 순서 → 올바르게는 ㄷ→ㄹ→ㄱ→ㄴ이다.
③ X — ㄷ→ㄱ→ㄹ→ㄴ은 조선 전기 영진군 ㄱ을 고려의 주현군·주진군 ㄹ보다 앞에 놓았다. 틀린 순서 → 고려의 ㄹ이 조선 전기 ㄱ보다 먼저이므로 ㄷ→ㄹ→ㄱ→ㄴ이다.
④ O — ㄷ→ㄹ→ㄱ→ㄴ은 통일 신라, 고려, 조선 전기, 조선 후기의 흐름과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ㄱ의 영진군과 ㄴ의 속오군은 모두 조선의 지방 군사 조직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영진군은 조선 전기, 속오군은 조선 후기이므로 ㄱ이 ㄴ보다 앞선다. 또 ㄹ의 5도·양계는 고려 지방 제도의 핵심 표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순서형 한국사 문항에서는 각 제도의 시대 표지를 먼저 찾는다. 10정은 통일 신라, 5도·양계는 고려, 영진군은 조선 전기, 속오군은 조선 후기로 연결하여 배열한다.

암기 포인트

10정 신라 → 5도·양계 고려 → 영진군 조선 전기 → 속오군 조선 후기이다.

NoteBase

문 12. 밑줄 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왕이 노비를 상세히 조사하여 옳고 그름을 밝히도록 명령하였다. 이 때문에 주인을 배반하는 노비들을 도저히 억누를 수 없었으므로, 주인을 업신여기는 풍속이 크게 유행하였다. 사람들이 다 수치스럽게 여기고 원망하였다. 왕비도 간절히 말렸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 『고려사절요』 —

① 구제도감을 설치하였다.
② 문신월과법을 실시하였다.
③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였다.
④ 삼한통보, 해동통보 등을 주조하였다.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제시문은 노비안검법을 시행한 광종의 업적을 묻는 문제이다. 노비안검법은 노비의 신분을 조사하여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을 양인으로 돌려보내고, 호족 세력을 약화하여 왕권을 강화하려는 정책이다.

핵심 정리

광종: 노비안검법·과거제·백관의 공복 제정을 통해 왕권과 관료 체제를 정비하였다.
성종: 유교 정치 이념을 바탕으로 문신월과법을 실시하였다.
예종: 빈민과 병자를 구제하기 위해 구제도감을 설치하였다.
숙종: 주전도감을 두고 해동통보·삼한통보 등의 화폐를 주조하였다.

선지별 해설

① X. 구제도감은 광종이 아니라 예종이 빈민·병자 구제를 위해 설치한 임시 기구이다. 틀린 표현 '구제도감을 설치하였다' → 올바르게는 '예종이 구제도감을 설치하였다'이다.
② X. 문신월과법은 문신에게 시와 부를 짓게 하여 유학과 문신의 학문을 진흥하려 한 성종의 정책이다. 틀린 표현 '문신월과법을 실시하였다' → 올바르게는 '성종이 문신월과법을 실시하였다'이다.
③ O. 광종은 관료의 위계에 따라 복색을 달리하는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여 관료 체제와 왕권을 정비하였다.
④ X. 삼한통보와 해동통보 등은 광종이 아니라 숙종 때 주조된 화폐이다. 틀린 표현 '삼한통보, 해동통보 등을 주조하였다' → 올바르게는 '숙종이 주전도감을 설치하고 삼한통보, 해동통보 등을 주조하였다'이다.

NoteBase

출제자가 노린 함정

고려 전기 왕들의 정책을 한데 섞어 제시한 점이 함정이다. 노비안검법이라는 단서로 광종을 먼저 확정한 뒤, 구제도감은 예종, 문신월과법은 성종, 화폐 주조는 숙종으로 구분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왕의 업적을 묻는 문제는 제시문의 대표 정책으로 왕을 먼저 특정한 다음, 각 보기의 제도를 그 왕의 정책 묶음과 대조하여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광종은 노비안검법·과거제·공복, 성종은 문신월과법, 예종은 구제도감, 숙종은 주전도감과 화폐 주조이다.

NoteBase

문 13. ㉠ ~ ㉣에 들어갈 단체로 옳은 것은?

◯ 1911년 북간도로 거점을 옮긴 대종교는 (㉠)(이)라는 무장 독립 단체를 만들었다. 이 단체는 3·1운동 이후 북로군정서로 발전하였다.
◯ 러시아 연해주에서는 권업회를 기반으로 한 (㉡)이/가 수립되었다. 이 단체는 이상설과 이동휘를 중심으로 하여 독립전쟁을 준비하였다.
◯ 1915년 의병 계열과 애국계몽운동 계열의 비밀 결사들이 통합하여 결성된 (㉢)은/는 공화국 건설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군자금을 마련하던 중 경찰에게 조직이 드러나 해체되었다.
◯ 경상도 일대에서는 윤상태, 서상일, 이시영 등이 중심이 되어 (㉣)을/를 조직하였다. 이 단체는 3·1운동이 일어나자 이에 적극 가담하여 각 지방의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① (㉠): 중광단, (㉡): 대한광복회, (㉢): 대한광복군정부, (㉣): 조선국권회복단
② (㉠): 조선국권회복단, (㉡): 중광단, (㉢): 대한광복회, (㉣): 대한광복군정부
③ (㉠): 중광단, (㉡): 대한광복군정부, (㉢): 대한광복회, (㉣): 조선국권회복단
④ (㉠): 대한광복군정부, (㉡): 중광단, (㉢): 조선국권회복단, (㉣): 대한광복회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1910년대 국내외에서 결성된 독립운동 단체를 결성 지역·주도 인물·이후 변천으로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중광단은 1911년 북간도에서 대종교가 조직한 무장 독립 단체이며, 3·1 운동 뒤 북로군정서로 발전하였다.
대한광복군정부는 러시아 연해주에서 권업회를 기반으로 이상설·이동휘 등이 조직한 독립운동 단체이다.
대한광복회는 1915년 의병 계열과 애국계몽운동 계열의 비밀 결사가 통합하여 결성한 공화국 건설 지향 단체이다. 조선국권회복단은 경상도에서 윤상태·서상일·이시영 등이 조직하여 3·1 운동 때 지방 만세 운동을 주도하였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과 ㄹ은 각각 중광단, 조선국권회복단으로 맞다. 그러나 ㄴ을 대한광복회, ㄷ을 대한광복군정부로 연결한 부분이 틀리다. 실제로는 ㄴ이 대한광복군정부이고 ㄷ이 대한광복회이다.
② X: ㄷ을 대한광복회로 연결한 부분만 맞다. ㄱ의 '1911년 북간도 대종교·북로군정서로 발전'은 중광단이므로 조선국권회복단이 아니다. ㄴ은 대한광복군정부, ㄹ은 조선국권회복단이다.
③ O: ㄱ 중광단, ㄴ 대한광복군정부, ㄷ 대한광복회, ㄹ 조선국권회복단의 연결이 모두 맞다.
④ X: ㄱ의 '대종교가 북간도에서 조직, 뒤에 북로군정서로 발전'은 대한광복군정부가 아니라 중광단이다. ㄴ은 대한광복군정부, ㄷ은 대한광복회, ㄹ은 조선국권회복단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대한광복군정부와 대한광복회는 명칭이 비슷하여 서로 바꾸기 쉽다. 연해주·권업회·이상설·이동휘는 대한광복군정부이고, 1915년 비밀 결사 통합·공화국 건설은 대한광복회라는 점이 구별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단체명만 외우지 않고 지역과 단서를 먼저 묶어 판단한다. 북간도 대종교·북로군정서는 중광단, 연해주 권업회는 대한광복군정부, 1915년 공화국 건설은 대한광복회, 경상도 만세 운동은 조선국권회복단으로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중광단은 북간도 대종교, 대한광복군정부는 연해주 권업회, 대한광복회는 1915년 공화국, 조선국권회복단은 경상도 만세 운동이다.

NoteBase

문 14. 다음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룡(祖龍)이 어금니와 뿔을 휘두른다'고 한 것은 세조를 가리켜 시황제에 비긴 것이요, '회왕을 찾아내어 민망(民望)에 따랐다'고 한 것은 노산군을 가리켜 의제(義帝)에 비긴 것이고, '그 인의를 볼 수 있다'고 한 것은 노산을 가리킨 것이니 의제의 마음에 비추어 말한 것이다.

① 폐비 윤씨 사건에 관련된 자들과 사림세력이 제거되었다.

② 훈구세력은 조광조 일파를 모함하여 죽이거나 유배 보냈다.

③ 훈구세력이 사관 김일손의 사초 내용을 문제 삼아 사림을 축출하였다.

④ 훈구세력이 폭정을 일삼던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을 왕으로 세웠다.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김일손의 사초에서 문제 되어 일어난 무오사화와 그 결과를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무오사화는 연산군 때 훈구 세력이 김일손의 사초에 실린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문제 삼아 사림을 탄압한 사건이다. 「조의제문」은 세조와 노산군을 중국 역사상의 인물에 빗대어 쓴 글로 해석되어 화근이 되었다.

선지별 해설

① X. '폐비 윤씨 사건'과 관련된 자들을 처벌하고 사림을 제거한 것은 갑자사화이다. 틀린 사건 연결 → 무오사화에서는 「조의제문」이 실린 사초를 문제 삼아 사림을 탄압하였다.

② X. 조광조 일파를 모함하여 죽이거나 유배 보낸 사건은 기묘사화이다. 틀린 사건 연결 → 무오사화에서는 김일손의 사초와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탄압의 구실이 되었다.

③ O. 훈구 세력은 사관 김일손의 사초에 실린 김종직의 「조의제문」 내용을 문제 삼아 사림을 축출하였다. 이것이 무오사화의 핵심이다.

④ X.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을 왕으로 세운 사건은 중종반정이다. 틀린 사건 연결 → 무오사화에서는 연산군 때 훈구 세력이 사초 문제를 빌미로 사림을 탄압하였다.

NoteBase

출제자가 노린 함정

①의 갑자사화, ②의 기묘사화, ④의 중종반정은 모두 연산군·중종 시기와 연결되어 혼동하기 쉽다. 제시문에 세조·노산군을 빗댄 글과 사초가 나오면 「조의제문」 사건, 곧 무오사화로 판단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화는 탄압의 구실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조의제문」·김일손의 사초는 무오사화, 폐비 윤씨 복위 문제는 갑자사화, 조광조 탄압은 기묘사화에 해당한다.

암기 포인트

무오사화 = 「조의제문」 + 김일손의 사초 + 사림 탄압이다.

NoteBase

문 15. 우리나라 근대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함경도 덕원 주민들의 건의로 근대식 학교인 원산학사가 설립되었다.
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세운 기독교 계통의 학교에는 배재학당과 이화학당 등이 있었다.
ㄷ. 정부는 외국어 교육 기관으로 동문학을 설립하였다.
ㄹ. 교육입국조서가 반포되었고, 사범 학교와 외국어 학교의 관제가 제정되었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근대 교육의 전개 과정에서 민간이 세운 근대식 학교, 선교사 설립 학교, 정부의 외국어 교육 기관, 교육 제도 정비 내용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원산학사는 함경도 덕원 주민의 발의로 세워진 근대식 학교이다.
배재학당과 이화학당은 선교사들이 세운 기독교 계통 학교이다.
동문학은 정부가 설치한 외국어 교육 기관이며, 교육입국조서 반포 뒤 사범학교와 외국어 학교의 관제가 마련되었다.

선지별 해설

① X: ㄱ만 선택한 것은 불완전하다. ㄴ·ㄷ·ㄹ도 모두 옳다. 틀린 표현 'ㄱ' → 올바르게는 'ㄱ, ㄴ, ㄷ, ㄹ'이다.
② X: ㄱ과 ㄴ만 선택한 것은 불완전하다. 정부가 외국어 교육 기관으로 동문학을 설립한 ㄷ과 교육입국조서 이후의 제도 정비를 말한 ㄹ도 옳다. 틀린 표현 'ㄱ, ㄴ' → 올바르게는 'ㄱ, ㄴ, ㄷ, ㄹ'이다.
③ X: ㄹ을 제외한 것은 잘못이다. 교육입국조서가 반포된 뒤 사범학교와 외국어 학교의 관제가 제정되었다. 틀린 표현 'ㄱ, ㄴ, ㄷ' → 올바르게는 'ㄱ, ㄴ, ㄷ, ㄹ'이다.
④ O: ㄱ의 원산학사, ㄴ의 배재학당·이화학당, ㄷ의 동문학, ㄹ의 교육입국조서 이후 제도 정비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원산학사·선교사 학교·동문학·교육입국조서가 각각 다른 설립 주체와 시기에 속한다는 점 때문에 일부만 옳다고 판단하기 쉽다. 이 문항에서는 네 문장 모두 사실이므로 하나라도 빼는 선택지는 오답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근대 교육 관련 선지는 설립 주체를 먼저 확인한다. 주민의 발의는 원산학사, 선교사는 배재학당·이화학당, 정부의 외국어 교육 기관은 동문학으로 연결한 뒤 교육입국조서 이후의 제도 정비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주민 원산학사, 선교사 배재·이화, 정부 동문학, 교육입국조서 뒤 학교 관제이다.

NoteBase

문 16. 다음 자료에서 밑줄 친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통령은 우리 위원회의 활동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내무장관은 피의자인 노덕술을 요직에 등용하였다. … (중략) … 당국자가 노덕술을 보호하고, 우리 위원회에 그의 석방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친일 경관이 아니라 애국심을 지닌 경관이 등용되기를 바란다.

① 남북협상을 추진하였다.

② 부산정치파동으로 인해 해산되었다.

③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주도하였다.

④ 제헌 헌법의 특별 규정에 의해 제정된 법률에 따라 구성되었다.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노덕술 체포, 이승만 정부의 반발, 친일 경찰 청산 요구를 단서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의 성격과 활동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반민특위는 제헌 헌법의 특별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조사·처벌하려고 설치된 기구이다.
반민특위는 친일 청산 기구이고, 남북 협상 추진 세력이나 3·15 부정 선거 규탄 시위 세력과는 구별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남북 협상은 1948년 김구·김규식 등이 남북 분단을 막기 위해 추진하였다. 틀린 표현은 '남북협상을 추진하였다'이며, 반민특위는 친일 행위 조사와 처벌을 담당하였다.
② X. 반민특위는 부산 정치 파동으로 해산된 기구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부산정치파동으로 인해 해산되었다'이며, 실제로는 이승만 정부의 방해와 경찰의 반민특위 습격으로 활동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③ X. 3·15 부정 선거를 규탄한 시위는 1960년 마산에서 시작되어 4·19 혁명으로 이어진 학생·시민의 시위이다. 틀린 표현은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주도하였다'이며, 반민특위의 활동 시기는 1949년이다.
④ O. 제헌 헌법은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 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반민특위는 이 특별 규정과 반민족행위처벌법에 근거하여 구성되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자료의 '노덕술', '친일 경관', '대통령의 반발'은 반민특위의 핵심 단서이다. ①의 1948년 남북 협상, ②의 1952년 부산 정치 파동, ③의 1960년 3·15 부정 선거처럼 다른 시기의 사건을 반민특위와 연결하는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친일파 처벌, 노덕술 체포, 반민특위 습격이 제시되면 먼저 반민특위를 떠올린다. 이어 제헌 헌법의 특별 규정과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연결하고, 선지의 사건 연도가 1948~1949년대와 맞는지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제헌 헌법 특별 규정 → 반민족행위처벌법 → 반민특위 구성이다.

NoteBase

문 17. 밑줄 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왕은 계지술사(繼志述事)를 내걸고 전통문화를 계승하면서 중국과 서양의 과학 기술을 받아들여 국가 경영을 혁신하였다. 또한 재정 수입을 늘리고 상공업을 진흥하기 위해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의 금난전권을 폐지하여 자유 상업을 진작하고, 전국 각지의 광산 개발을 장려하였다.

<보기>
ㄱ. 무위영을 설치하였다.
ㄴ. 『동문휘고』를 편찬하였다.
ㄷ. 수성윤음(守城綸音)을 반포하였다.
ㄹ. 한구자(韓構字)와 정리자(整理字)를 주조하였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계지술사와 신해통공으로 제시된 정조의 업적을 확인하고, 정조 대의 편찬·활자 주조 사업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정조는 규장각을 중심으로 학문과 편찬 사업을 장려하고, 신해통공으로 금난전권을 폐지하였다. 『동문휘고』는 정조 때 편찬된 외교 문서집이며, 한구자와 정리자도 정조 때 주조한 금속활자이다.
영조는 수도 방어 체계를 강화하며 『수성윤음』을 반포하였다. 무위영은 1880년대 초 고종 때 설치된 군영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의 무위영과 ㄷ의 『수성윤음』은 모두 정조의 업적이 아니다. 무위영은 고종 때 설치되었고, 『수성윤음』은 영조가 수도 방어 체계를 강화하면서 반포하였다.
② X. ㄹ의 한구자·정리자 주조는 정조의 업적이지만, ㄱ의 무위영 설치가 틀렸다. 틀린 표현인 '무위영 설치' → 올바르게는 고종 때의 군제 개편과 관련된다.
③ X. ㄴ의 『동문휘고』 편찬은 정조의 업적이지만, ㄷ의 『수성윤음』 반포가 틀렸다. 틀린 표현인 '수성윤음 반포' → 올바르게는 영조의 수도 방어 강화 정책이다.
④ O. 『동문휘고』 편찬과 한구자·정리자 주조는 모두 정조의 업적이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수성윤음』은 정조의 화성 건설·장용영 강화와 함께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영조의 수도 방어 정책과 연결된다. 무위영도 군영이라는 말 때문에 조선 후기 전반의 군제와 섞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조의 업적은 규장각·신해통공·화성·편찬 사업·활자 주조로 묶어 판단한다. 군영이나 수도 방어 정책이 나오면 해당 제도가 정조 대인지 영조·고종 대인지 분리하여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정조 = 『동문휘고』·한구자·정리자, 영조 = 『수성윤음』, 고종 = 무위영이다.

NoteBase

문 18. 고구려와 중국의 관계를 사건이 발생한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유주자사 관구검이 쳐들어와 환도성을 함락하자 왕은 옥저 쪽으로 도망하였다.
ㄴ. 고구려가 요동의 서안평을 공격해 차지하고, 낙랑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내었다.
ㄷ. 모용황이 고구려를 침략하여 궁실을 불사르고 5만여 명을 포로로 붙잡아 갔다.
ㄹ. 고구려가 후연을 공격하여 요동으로 진출하고, 동북쪽으로는 숙신을 복속시켰다.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ㄱ → ㄷ → ㄴ → ㄹ
③ ㄴ → ㄷ → ㄹ → ㄱ
④ ㄴ → ㄹ → ㄷ → ㄱ

정답 1번

정답

정답은 1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고구려와 중국 세력의 대외 관계를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배열하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ㄱ 관구검의 침입 — 위(魏)의 유주자사 관구검이 246년에 환도성을 함락하자 동천왕이 옥저 방면으로 피신하였다.
2. ㄴ 낙랑군 축출 — 고구려가 313년에 요동의 서안평을 공격하고 낙랑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냈다.
3. ㄷ 모용황의 침략 — 전연의 모용황이 342년에 고구려를 침략하여 환도성을 함락하고 주민 5만 명을 끌고 갔다.
4. ㄹ 후연 공격과 숙신 복속 — 광개토대왕 시기에 고구려가 후연을 공격해 요동으로 진출하고 동북쪽의 숙신을 복속시켰다.

왜 이 순서: ㄱ의 관구검 침입은 246년으로 가장 이르고, ㄴ의 낙랑군 축출(313년) 뒤에 ㄷ의 모용황 침략(342년)이 일어난다. ㄹ은 광개토대왕의 대외 팽창이므로 5세기 초의 일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ㄱ → ㄴ → ㄷ → ㄹ은 246년 → 313년 → 342년 → 5세기 초의 시간 흐름과 일치한다.
② X. ㄷ은 342년의 사건이고 ㄴ은 313년의 사건이므로 ㄷ이 ㄴ보다 앞설 수 없다. 틀린 순서: ‘ㄱ → ㄷ → ㄴ → ㄹ’ → 올바르게는 ‘ㄱ → ㄴ → ㄷ → ㄹ’이다.
③ X. ㄴ의 낙랑군 축출은 313년이고 ㄱ의 관구검 침입은 246년이므로 ㄴ이 가장 먼저일 수 없다. 틀린 순서: ‘ㄴ → ㄷ → ㄹ → ㄱ’ → 올바르게는 ‘ㄱ → ㄴ → ㄷ → ㄹ’이다.
④ X. ㄹ은 광개토대왕 시기의 5세기 초 사건으로 ㄷ의 모용황 침략보다 뒤이다. 틀린 순서: ‘ㄴ → ㄹ → ㄷ → ㄱ’ → 올바르게는 ‘ㄱ → ㄴ → ㄷ → ㄹ’이다.

오답 포인트

ㄷ의 모용황 침략과 ㄱ의 관구검 침입은 모두 환도성 함락과 왕의 피신을 떠올리게 하므로 혼동하기 쉽다.
관구검은 위의 장수로 3세기 중엽, 모용황은 전연의 군주로 4세기 전반이라는 시대 차이로 구분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구려 대외 관계의 순서 문제에서는 먼저 위의 관구검 침입을 3세기, 낙랑군 축출과 전연의 모용황 침입을 4세기 전반, 광개토대왕의 정복 활동을 5세기 초로 묶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관구검-낙랑군-모용황-광개토대왕: 3세기 위 침입 → 4세기 낙랑군 축출·전연 침입 → 5세기 대외 팽창이다.

NoteBase

문 19.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소위 문화통치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국 각지에 대화숙을 설치하여 사상범에게 전향을 강요하였다.

② 헌병경찰제가 보통경찰제로 전환되면서 경찰의 수가 증가하였다.

③ 「치안유지법」을 제정하여 사상을 통제하고 사회운동을 탄압하였다.

④ 문관도 총독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무관 총독만이 부임하였다.

정답 1번

정답

정답은 1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3·1 운동 뒤 일제가 실시한 이른바 문화 통치의 내용과 1940년대 전시 통제 정책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문화 통치는 3·1 운동 이후 일제가 무단 통치의 겉모습을 일부 바꾸어 민족 운동을 회유·분열시키려 한 통치 방식이다. 핵심 키워드는 헌병 경찰제의 보통 경찰제 전환, 경찰력 증강, 언론·교육 통제의 지속이다.
전시 통제는 중일 전쟁 이후 전쟁 수행을 위해 인적·물적 자원과 사상을 강하게 통제한 정책이다. 대화숙을 통한 사상범 전향 강요는 전시 통제기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전국 각지에 대화숙을 설치하여 사상범에게 전향을 강요'한 것은 1940년대 전시 체제 아래의 사상 통제 정책이다. 틀린 표현은 이를 '문화 통치'의 내용으로 본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전시 통제기에 대화숙 등을 통해 사상범의 전향을 강요하였다.
② O. 문화 통치기에는 헌병 경찰제를 보통 경찰제로 바꾸었지만, 실제로는 경찰 수를 늘려 식민 통치와 민족 운동 탄압을 강화하였다.
③ O. 일제는 치안 유지법을 이용하여 독립운동·사회주의 운동 등 민족·사회 운동을 사상 문제로 규정하고 탄압하였다.
④ O. 총독 임명 자격을 문관에게도 열어 둔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끝까지 무관 출신만 조선 총독으로 부임하였다.

오답 포인트

①은 '사상범 전향'이라는 강압적 표현을 문화 통치와 연결한 것이 함정이다. 문화 통치는 통치 방식의 외형을 바꾼 1920년대 정책이고, 대화숙을 통한 전향 강요는 1940년대 전시 통제의 내용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헌병 경찰제의 보통 경찰제 전환, 경찰 증강, 문관 총독 허용이 나오면 문화 통치와 연결한다. 사상범 전향, 대화숙, 황국신민화와 같은 표현이 나오면 전시 통제기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문화 통치 = 겉은 완화, 실제는 경찰 강화 / 대화숙·전향 강요 = 1940년대 전시 통제이다.

NoteBase

문 20. 다음 신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옛날에 환인의 아들 환웅이 있었는데, 자주 천하를 차지할 뜻을 두고 사람이 사는 세상을 탐내고 있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아래로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그곳이)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해 줄만 하였다. 이에 (환인은) 천부인 세 개를 (환웅에게) 주고, 가서 인간의 세계를 다스리게 하였다.
— 『삼국유사』 —

① 신화의 내용이 『고기(古記)』에 수록되어 있었다.

② 고조선이 중국의 제(帝)와 교역하였음을 전하고 있다.

③ 단군이 중국의 요(堯)가 재위하던 시기에 건국하였다고 한다.

④ 환웅이 풍백·우사·운사를 거느리고 세상을 다스렸다고 한다.

정답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삼국유사』에 실린 단군 신화의 내용과 그 사료가 전하는 사실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단군 신화는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 세계를 다스리고, 뒤에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웠다고 전하는 건국 신화이다. 이 자료는 『고기(古記)』의 기록을 인용하며, 『삼국유사』 단군조선 조에는 단군의 건국 시기를 중국 요 임금 때로 전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지문 첫머리가 '고기(古記)에 이르기를'이라는 뜻이므로, 환웅 신화의 내용이 『고기』에 수록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② X. 지문은 고조선이 중국의 제(齊)와 교역했다는 사실을 전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제(齊)와 교역'이며, 올바르게는 환웅의 강림과 인간 세계 통치, 단군의 고조선 건국을 전하는 사료이다.

③ O. 『삼국유사』 단군조선 조는 단군 왕검이 중국의 요(堯)가 재위하던 때에 고조선을 세웠다고 전한다.

④ O. 지문에서 환웅은 풍백·우사·운사를 거느리고 인간의 세계를 다스리게 되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는 중국의 국가명인 '제(齊)'를 제시해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지만, 사료의 핵심은 교역이 아니라 환웅 신화와 단군의 건국이다. 사료에 없는 대외 관계를 덧붙인 표현을 경계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단군 신화 사료에서는 '고기 인용', 환웅의 강림, 풍백·우사·운사, 인간 세계 통치, 요 임금 때 단군의 건국을 연결해 확인한다. 선지가 사료에 없는 교역·전쟁·제도 내용을 덧붙이면 오답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고기 인용 → 환웅 강림 → 풍백·우사·운사 → 단군의 고조선 건국이다.

NoteBase